

하늘에 이르는 길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말하지 않고도 답하는 것, 부르지 않고도 끌어 당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노자

전략의 본질

우리가 전략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이유와 군대(전략의 요람) 혹은 회사(경영의 요람)로부터 찾고 있던 것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때, 우리는 본질과 추상적인 속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전략가는, 이러한 추상적 속성에 의해서 유도된 목적을 위해 그 세계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찰자로서 현 조건들을 변경 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전략이 근본적으로 이론적이며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익 산출을 위하여, 실질적인 세계 속에서 정복, 성취 혹은 목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전략은 이것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공의 지침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실체화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이 특별한 관찰자가 비물질적이고 탁월한 제시를 보여야 할 이 모순의 상태에 세상의 이중적이며 비물질적인 양극성의 보상이 있다. Dewey¹의 실용주의 철학의 전통에는 철학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논리가 아닌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이 의미를 모든 종류의 활동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또한 전략적인 것의 가르침의 기본과 유사한 실용적인 비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전략가가 되길 바라는 이유를 제공하는 무형의 제시 안에 혹은 찾음에 근거를 둔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미래의 현실을 설명할 다양한 요소들의 저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이유-직관에 의해 도달한 결론의 고유의 이중성 너머의 연구. 이 연구는 결정과 해결의 유일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잠재적으로 가능하며 물질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미래-현실의 일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전략이다.

이 양자 물리학의 갖길로부터 주제 속에 영구한 성질의 습관의 기준을 묘사하기 위하여 양자 메모리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거나(개인의 정신적이며 생명에 관련된 경향으로서의 이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관습에서 정신(물리적인 결말에서의 양자적인 단자)혹은 존재의 시작, 발전, 성장을 허락하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설명한 항구적인 성질이 명명되었다. Kurzweil(2009)의 관점에서는, 연속적인 발전의 시작으로부터 현대의 인간은 단일성(그의 관점에서의 정신과 기술의 융합)을 따라 간다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생물학-정보학의 통합 발전 과정으로 대조해 보자면 우리들의 관점은 비슷하며 우리의 규율을 이행하는 내력은 이것을 설명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략가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융합을 연결할 수 있는 점을 찾는다.

지각할 수 있는 세계로서의 분명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Bohm(1957)은 “ 고유한 사상은 정신과 물질 사이에서 구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의 모델은 이 차이들을 입증 하라고 훈련 시킨다. 견고하고 명확한 형태를 지니지 않은 것, 무언가 상이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신이라 부른다. 이렇든 저렇든 물질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알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은 논제 될 것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가지 못한다.” 이 설명에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저 너머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진술가의 행동으로 향하고 있는 정신과 같은 이 중요한 본질을 정할 수 있다(충분히 우리에게 암시적이며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점들은 인류와 우주의 더 복잡한 비전에 관한 새로운 논쟁에 근거를 두고 과학과

철학의 새로운 연결 흐름의 발전 진행을 시키는데 공조하면서, 생물학, 심리학, 신경학, 교육학, 물리학 그리고 정보학과 같은 규칙에서 나온다.

미래의 비전의 유일한 길에서 완전함의 구함(이중의 인간의 순환의 종료) 과 각기 다른 규칙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법을 통합하는 일반적인 언어 발견의 벡터를 설명한다. 이 유일한 언어는 전략가의 정신과 뇌에서 보기 위하여 창조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 길에서 누가 동반자가 될지 믿기 위하여 보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모든 인간의 정신처럼 전략의 본질에 나타내어지는 길에는 배움의 충동과 찾음이 있다. 그리고 그의 경우에는 실제적이고 집약된 결정에 의해서 표현된다: 얻고자 결정된 것에 의해 생각된 것(혹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시간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것.

정신적인 과정으로서 인류의 진화는 추상적인 것을 각성시키는 감각에서 이해 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Kurzweil(2008)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진화의 과정에서 보자면 우리들은 더 지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본다. 그것들은 더 창조적이며 아름다운 것이다. 작가가 우리에게 신의 정신세계의 질서 에서 행해진 것들을 고려하라고 추천 하는 것과 마주하여 그것은 지성, 성장, 창조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하여는 무한한 능력으로 묘사된다. 그에 앞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우리가 그를 행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진화로의 전진에 있는 지수로서의 방향은 아닌가? Kurtzweil 은 진보는 정신적인 과정에서 움직여지며 매번 신과 닮아 간다고 명쾌하게 결론 짓는다(또한 우리가 초끈 이론의 실질적인 모델안에서 추구된 빛나는 통일 이론을 읽는다면 그것은 가장 명확한 것이다).

현재의 과학은 시공간을 초월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인정하며 그로 인하여 또한 양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관찰자의 정신의 존재로부터 얻어진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lo Von Clausewitz 의 *Coup Due'l* 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옹호자들이나 직업에 정통한 사람들은 연구할 목적과 현실 관계를 믿을 것과 어떤 연구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강요 받는다. 과학의 대가의 경험은 그의 연구에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는 직관의 간격을 둔다면 할말이 없게 만드는 근거가 있다(충분히 가능 하지만 “사상을 통하여 사상의 틀을 결정 짓는 것” 은 Kant 에 있어서는 논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Goedel 에게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만약 간단한 이해가 해답을 줄 수 있다면 과학은 무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통의 형태에서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정신 이며 수백만의 신경세포와 수천 가지 전기화학적 결합과 관련된 뇌에 우리의 기억, 감정 그리고 경험이 축적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인식의 연속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뛰어난 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Einstein 이 설명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사멸하는 것은 없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라는 것을 고려할 때 초능력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행동하게 하는 요인

고생물학에 있어서는, 예로서 만약 무기 제조와 연장의 생산에 비교 한다면 영혼의 사상과 이념이 나타나는 순간은 더딘 것 같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신의 이상은 사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요인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이 본질과, 전략가의 정신에 있는 미리 알림과 해결을 찾는 것을 수반한 것에 관해 말하자면 차이가 없다(전략적인 문제의 해결은 전략 그 자체이다). 예를 들어 역사는 우리에게 서양의 중세에 해당하는 시기에 힌두즘 이나 부디즘의 사상과 흡사하게 들들도 나무들과 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의미에서 그리스의 감성(theion: 포함시킴과 시간의 회전의 틀에서 모든 사물에 존재한다)과 연결된다.

“전략적 문제의 해결 방안은 전략 그 자체이다”

이 사상에 관해서는 Zimmer(2004)는 회의적으로 “인간이 변화의 행위를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상승하는 물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싸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정확히 말해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의 행위의 표현에 있다. 그것에서 Zimmer 는(그를 포함하여) 우리들은 눈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믿는다. 표면적으로 오류가 있는 형식으로부터 정신의 실체를 표방한다면 그것들은 물론 행동하게 만드는 요인들의 결과들이다. 이처럼 만약 우리들이 연속적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행위들의 변화를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결과는 명백하다.

그것은 단지 행동으로의 요인 혹은 정신(독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편하다면)을 볼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인상을 경험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코앞에 항상 있었고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공동의 창조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예를 들자면 전략에서) 진화를 관찰 할 수도 있다. 인간 이승의 고유한 설명들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는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의 한 부분을 제공한다,

역사를 끌어오자면, 이집트에서 세계를 보는 관점은 마음은 영혼에 집중되어 실현되고 그 형태는 그의 삶의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은 물론 마음에 머물러있어야 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사상은 또한 그리스인들(다른 사람들 중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인도 공유했다. 이 믿음은 카톨릭에도 적용 되며 중세에 신성함과 숭고함의 표시로서 빛나는 심장을 가진 예수의 형상으로 표현된다. 불쾌한 형상과 무용의 조건의 생각을 없애면서, 17세기 영국에서는 육체를(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영원한) 요소로서 영혼을 이해했다. 몇 세기 후에 신경전의를 발견할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며 서양 신경학 시대를 시작한 사람은 Thomas Willis(1621-1675, Oxford 의 농부의 아들) 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뇌와 정신은 분리 될 수 없는 두 가지의 개념이다. 1664년 Willis 는 신경학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뇌 해부학”을 출간 한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의 사상 및 근거를 포함한 최초의 작업이었다.

신경과학 연구의 충격은 외부 세계의 자극과 내부 세계(지각을 통하여 측정 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방법)에서의 결과들을 더 잘 이해하려는 근대사회에 가까워지기 위해 근래에 중요해졌다. 이러한 진보 덕분에 오늘 우리는 뇌 물리 화학의 과정의 결과는 우리의 이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우리는 전과 안테나로 더 잘 비교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코드를 푸는 강력한 모델로 명명할 것이다: 쇠약해진 가능성들의 물결에서 공동 성장의, 연락 가능한, 그리고 변경 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그리고 일반 적으로 육체)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분리 되었을 때 그것의 본질 혹은 기원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현실과 관련이 있는 상황과의 연결 혹은 조합(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던)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 용량에 가라앉은 관찰자들 앞에 이 나 는 분열되는 것처럼 보인다(이것은 알츠하이머처럼 질병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 이 나 혹은 가짜-영혼은 인격화를 동반하는 물리적인 육체의 서식지와 분리된다). Zimmer 는 우리에게 이미지학을 통하여 “우리자신을 생각하도록 촉진하는 어떤 종류에 공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뇌의 특정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연구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의식과 뇌의 관계는 아직 미스터리가 남아있다고 대답했다.

항상 이 전략가의 구함을 촉진시키는 행동하게 하는 요인을 설명하게 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Chopra(2009)는 우리를 그의 견해로 인도 한다: “영혼은 잠재력의 운반자, 정신은 의도의 운반자, 두뇌는 결과의 설계자이다”. 그것은 우리의 탐구에서 전략가의 행동요소의 찾음, 그의 문맥상, 분석상, 창조성상, 종합적인 그리고 교신상 능력들의 잠재적인 머뭇의 증명 이다. 것처럼 활동적인 상호 작용의 방법에서 이러한 사상들을 변화 시키게 하는 원동력이며 이러한 사상 등은 구체적인

행동(뇌)에서 서로 연계된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전략적인 개념의 전진은, 잠재적인 것(의지) 와 결과적인 것에 관해서는 매우 비슷한 모델을 따른다.

행동의 원동력

Chopra 는 그의 저작에서, 경영자에게 충분히 적용 될 수 있는 10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경영자에게 정신과의 재 결합을 제안했다.

- 네 몸의 밝음을 배양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진실, 아름다움의 육체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의 메시지를 받아라. (고대 그리스 법전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상).

- 엔트로피를 진화 시켜라: “정신은 너의 커다란 협력자다”

(Hermes Trismegisto 의 저작으로 보자면 모든 것의 기본은 정신이다)

- 의식 깊은 곳에 네 자신을 맡겨라: “나 자신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확신 그리고 새로운 감각”

- 영혼에 관해 관대해져라: 자기 자신에게 몸을 맡기고 진실을 억제하지 않으며 의식을 조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풍부함을 믿어라.

- 소비되는 것이 아닌 관계에 집중하라: 이 마지막 것(소비)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 네 자신의 몸과 항상 연결되어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네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라.

- 매일을 새로운 세상으로서 생각하라

- 시대를 초월한 것은 그 시대에 맡겨라.

- 이해하려고 수고하는 대신 세상을 느껴라(자기 자신을 오만하지 않고 충분히 명확히 아는 것을 나타낸다)

- 너 자신의 신비로운 점에 따라서 찾고 우리들은 나타내어지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네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장에서 우리가 동반했던 지식인, 철학자 그리고 연구자들의 언어와 사상들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친숙함과 집합적임 안에서 이지만 내부 언어로서 우리 삶의 이야기 또는 역사를 통하여 쉽게 나타난다고 보여 주는 것을 안다. 몇몇 연구 혹은 지적인 거장들의 의견들은(Sri Yoganada, Bhoim, Einstein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음악과 시 그리고 일반 예술을 통하여 모든 존재들에게 요동하고 교차되는 규율의 조합이 표현 되어 진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들, 표현들은 교신을 쉽게 해주는 본질에서 울린다(과학적인 언어와 구별되며 과학과 연구의 규칙 영역 안에 코드를 만들었던 사람들과 공유된 실제 혹은 의견상의 복잡성으로부터 전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1939, 1940 년 행해진 Stravinski ²의 수업에서 그는 단언한다 “음악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친교를 쉽게 해주는 것은 최고의 존재와 함께 유사한 것이다. 혹은 일반적인 단계에서 공유 되어진 규칙과도 말이다.

그러므로 이 전략가의 작업의 중요한 부분은 균형을 유지 하면서(이상적으로는 지혜의 공간 에서) 또한 물질세계에서 그의 표현을 찾고 있는 내부 동요 상태의 전달에 특별한 주의를 가지며(그것을 위해서는 유도된 것들과의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다) 우선 자기 자신과 보이지 않는 경쟁자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략가는 먼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처럼 전략가는 현명한 결정의 형태 안에서 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강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지식(혹은 폭로)은 미래에 무엇이 발생할지에 관해서 예언하는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그것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그렇게 진행되었으므로 모든 것은 일정한 리듬과 일반적인 패턴으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이것은 습관성을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것처럼 지각할 수도 있고, 신경 속에 있는 일정 단계에 코드화 되어있다)

서양 심리학의 모든 분과에서 증명된 이 영혼의 과학적인 생각에서 의지와 이성의 표상은, 행동으로 향하게 하는 힘을 자극시키는 움직이는 권위로서, 표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각각의 학과가 자신의 방식으로 영혼의 존재를 정의 한다면, 과학의 역사에서, 만일 우리가 영혼의 존재는 가장 가벼운 비판의 대상이 아니며 아마 고집하는 것은 인류의 범세계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의지와 이성에 대한 끈질긴 논쟁이다라고 Hawkins³에 의해서 말해진 것을 고려한다면 존재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물은 이러하며 이 사각형의 지적인 논제에서 우리들은 한 모퉁이에서 칸트를 발견하고 다른 모퉁이에서는 니체(그의 최고로 지적인 의지), 반대편 모퉁이에서는 쇼펜하우어(그리고 그의 세계표현 방식 “의지로서 혹은 표상으로서”) 그리고 나머지 모퉁이에서는 진리의 강좌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정답을 발견한다. 인간 존재는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영혼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삶을 설계하는 방식 안에 표현된 영혼이라는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다. 전략가의 정신 속에 있는 의지는 이미 실현된 것을 넘어서 실현 가능한 현 존재와 함께 가능한 미래의 무한한 생각을 연결한다. 이 이중성에서, “세계로의 방랑의 영혼”(노자)을 향한 끝없는 확장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전략가의 인식의 과장에서 수 천년 동양의 전통에서 가르쳤던 것 과 같은 내부에서 변형된 연금술의 통찰과 인상 있다: Jose Ignacio Cabezon(UCSB) 교수는 불교는 일종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회자한다(그것이 아니라 통찰력 안에). 노자에게 있어서는 이 내적인 진리라는 것은 다양한 표상들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으며(양자 물리학 적인 측면에서 말해서 노화되었건 그렇지 않건)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광범위하고 조합된 우주의 작용 에너지로서 노자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중립은 아니다. 그 길은 우리를 상호간에 이롭게 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해를 입히는데 두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선의의 권능이며 변증법적인 모델의 어떤 보편적인 구조 혹은 법칙이다. 세상일의 이중성 안에서 표상되며 이 틀 안에서 손자(Sun Tzu) 와 손빈(Sum Bin) 같은 전략가들의 성립을 나타낸다. 이 것들은 “길과 덕의 책” 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노자사상의 핵심서적 도덕경(Tao Te King) 에서 표현된 가르침이다.

그리고 80 쪽 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는 매장의 표제마다 온 세상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을 나타낸다. 기원전 약 600 년경에 노자(Lao Tse)에 의하여 쓰여진 서적에는 노자의 힘을 묘사하며(우주의 모순과 질서의 힘), 일상의 삶에서나 정부나 회상의 사업에서나 신성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충고 한다. 그의 어떤 이론들(그의 추종자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밝은 진실) 은 아래와 같다

- €€€€€€ 도(Tao)는 이 무한한 것들의 원리를 설명한다. 형태도 소리도 없는 이 것은 무형이며 영원하며 영구적이다. 이 원리는 말로는 설명 할 수 없다.

- €€€€€€ 도덕경(Tao Te King)은 여성의 가치를 유동성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물, 어둡고 신비로운 쪽으로의 선택, 지배함이 없이 사물들을 조절 하는 것으로 강조한다.

- €€€€€€ 전쟁의 승리는 영광되지 않다. 참해가 나타나므로 축하 할 것이 아니라 비탄의 원인이 된다.

- €€€€€€ 유연성 과 부드러움의 성질은 언제나 딱딱함이나 단단함 보다 우위에 있다.

- €€€€€€ 반대되는 것과의 대조(남성과 여성의 차이, 밝음과 어두움, 강함과 약함 등등) 는 세계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우리가 이 내부 연금술과 같은 발전의 규칙을 따라 간다면 우리는 완전성의 노정을 통한 전진으로서 전략가의 일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오한 엄격함이 강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노자가 의미하는 것이다: 거장이 되기 위한 전진은 오래됨, 시간의 흐름, 습관, 의식 혹은 복종에 의하여 성취되지 않는다(흰머리와 노령이 반드시 지혜와 동의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발전을 시도하지 않고 자신과 결합된 것을 반복 하거나 더 나쁜 경우지만 이 길에서 후퇴하는 영혼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연금술은 내부적, 지적, 직관적 그리고 육체적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 이며 전략가의 정신 속에서의 변화 이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직관으로서 “시간과 경험과 함께 성장한 것이 보여질 수도 있을 때, 그러나 물론 올바른 가르침이 성장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지적할 때 우리는 Duggan(2007)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이렇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내부 연금술은 문맥에 의존하는가? 외부로부터 자극 받은 내부의 결과가 있는가? 예를 들면 명상을 실행한 Hom 의 동요하는 인상과 같이 긍정적으로 내부 발전은 영향을 주는가?. 이 관점에서 그리고 신경과학을 통해서도 이미 수 천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문서로 혹은 명상의 습관으로 알려진 이것을 증명시키고 있다: “그처럼 부조화된 소리들은 신경에 자극을 주고, 듣기 좋고 소리는 생기 있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나약해진 신경조직에 원기를 불어넣어 준다”³. 과학적으로 자극적인 치유의 성질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신경계통과 생물조직의 조화로운 성장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Etomo⁴ 박사의 연구에서는 감미롭고 듣기 좋은 말들이 내포하는 조화의 결과가 입증될 때 이 크기 면에서 동요하는 긍정적인 존재를 분명히 하는 경향이 있다. (모두 동요하는 성질을 가진다⁵).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극복하거나 혹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전략적 행동들의 역사에서 답습할 수 있다.⁶ 그 역사는 우리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피하고, 만약 비슷한 방식에서 비롯된 것 이거나, 혹은 그럴 시 그에 반대되는 제안을 할 때 의심 없이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의 결정을 도움 받는다.)

이러한 전략적 행동의 원형 혹은 규약은 연속적으로 숨겨져 있고, 우리가 증명하길 추구하는 이 전략적 행동의 역사의 본질을 가로지른다. 또한 보고자 하는 누구든 자유롭게 보고 행할 수 있다. : 인간의 정신은 시간-공간의 연속된 평행상태와 같다고 표현한다 (John Archibald Wheeler 는 “시간-공간이 말하길 물질은 곡선으로 휘어지며, 이 물질은 시간-공간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한다”

라고 했다.) 또한 탁월한 인생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라 촉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라만상의 뿌리까지 신과 대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통찰했다). 결과적으로 시간-공간에서 끊임없이 중요하게 여겨져 온 이념과, 숙고-직관(정신상의)의 능력을 통한 물질의 지배력은 전략가를 움직이게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며, 역사가들의 종합된 문서 안에서 우리가 좀더 확실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표현이다. 또한, 전략적 사고의 전통은 마인드 맵핑에 있어 발자국을 남겼다. 전략의 본질은 행동들과, 대화들 그리고 Chung-ho chi/ Zhongho-jí (“깊은 지식은 마음의 동요가 생기기 전에 마음의 동요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먼저 의식, 자각하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둔다”), 도덕경(Tao Te King , “아직 쉬울 때에 어려움을 계획하고, 아직 작을 때에 큰일을 도모하라”), 장소(Zhao), 손자(Tzun Zu), 손빈(Sun bin), 노자(Lao Tse), 태공망(T'ai Kung's), 사마천(Ssu-ma), 오기(Wu-Tzu), 위료(Wie lio-tzu), 그리고 공자(Confucio)와 같은 위대한 스승의 정신과 의지에 관한 이야기와 같이 미래에 대한 그들의 저술들을 횡단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표현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와 그 밖에 수많은 이들은 그들의 업적과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그 시대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때 그들은 용감한 정신과 더불어 동시대에 살던 이들을 확대시키는, 그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그 뛰어남이 구별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어 수행된 그들의 지식들의 깊이와 뛰어남은 그들의 동시대 사람들과는 달랐다

서양의 발상지에서 Delfos 가 “너 자신을 알라”의 중요성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면 우리와 같은 현실과 관련된 사실에 있어서 성장과 생존의 근원인 저 근본 조건들을 바라볼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쪽으로 한 발짝 내디딘다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하여 존재의 본질, 그 중요성 및 좋은 길의 발견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비록 매일 매일의 삶의 활동에서 형성된 자연적인 경영자와 전략가가 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전략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전략가가 되길 원하는 자가 그의 잠재적인 상태를 해체 할 목적 하에 자극 받고 실행될 수 있다⁷. Ohmae⁸ 는 이런 종류의 자연상태로 충분히 전략적으로 발달된 정신을 소유한 지도자-사업가에게 이하와 같이 설명해 준다: 이 진전의 열쇠는 예리함과 예민 함이다. 창조적이고 부분적으로 직관적이며 또한 많은 경우에 현재의 상황에 반대되므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계획은, 분석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효성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 전략들에 특별하고 대립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계획들의, 우리가 덧붙일 수 있다면 정신이 품고 있는 결정 과 의지 그리고 이 것들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것, 창조적인 요소 들이다.

"Sabiduría Estratégica"

Por Francisco Javier Garrido



De los directivos se espera que sean profesionales en sus tomas de decisión y por ello, es requisito que la misma sea portadora no solo de una cierta amplitud de conocimientos, sino de conocimientos profundos.

By Francisco Javier Garrido®

En apariencia será justamente esa capacidad de ahondar en el justo equilibrio intuitivo-racional lo que diferenciará la acertada toma de decisiones estratégicas. Este equilibrio es el que hace más de dos mil años se plasmaba en las decisiones de sabios generales provenientes de la tradiciones del Este asiático (Sun Tzú, entre otros).

Sabemos que quien aplica el método científico para investigar, está haciendo ciencia, pero no necesariamente puede ser considerado como un científico. Del mismo modo, quien aplica algunos principios estratégicos podrá diseñar una estrategia, pero no necesariamente podrá ser considerado un estratega. Desde la tradición oriental y occidental encontramos una persistente línea de acuerdo fundamental en que la tarea central del estratega (estrategos o general de ejército) será el concebir la estrategia y cuidar que su manifestación se exprese en acciones concretas con sentido de urgencia. No obstante, dicha tarea central u objeto de estudio, se condiciona necesariamente en su ejercicio a las condiciones y cualidades personales de quien ejerce la función de estratega.

Es la convergencia y unicidad en la toma de decisiones, lo que supone una condición por sobre el promedio por parte de quien debe encargarse de la concepción estratégica, es por ello que en el mundo de las escuelas de pensamiento estratégico universal no resulta extraño que haya un estratega al frente de numerosos managers (no obstante pueda parecer extraño ante la mirada antojadiza o de aprendiz). Son estas habilidades las que llamamos sabiduría estratégica y son las que hacen la diferencia entre las decisiones de aspirantes a directivos y un verdadero estratega: "los sabios nunca se obsesionan con lo que es grande y es por ello que pueden conseguir la grandeza".